

부르는게 값... 들쭉날쭉 이사요금 불만 높다

광주 업체별 비용 평일 20만원·길일 30만원 이상 차이 무허 업체 난립 속 피해보상 까다로워 피해 호소 잇따라

본격 이사철을 맞아 기준없는 들쭉날쭉한 이사요금과 까다로운 피해보상 절차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이사비용에 대한 검증된 기준과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로 이사견적을 요청해도 이사업체에 따라 비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게 이주객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사 도중 물품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절차가 복잡해 민사소송 외에는 사실상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에는 배상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무허가 이사업체까지 난립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손을 놓고 있다.

22일 광주화물주선협회에 따르면 광주시에 등록된 이사집센터는 ▲북구 74곳 ▲광산구 26곳 ▲서구 21곳 ▲남구 9곳 ▲동

구 7곳 등 총 137곳에 이른다. 하지만, 업체별 이사비용은 79.34㎡(24평), 5t 용달차 기준 평일 20만원, 이사가기 좋은 날로 알려진 이른바 ‘손 없는 날’은 최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광산구 A업체는 5t 용달차를 기준으로 주말은 100만원으로 평일 110만원보다 10만원이상 저렴했으며, ‘손 없는 날’에는 125만원을 지급해야 예약이 가능하다. 이 업체에서는 그나마 ‘손 없는 날’인 다음달 4일과 5일까지는 이사에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반면 같은 광산구에 있는 B업체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88만원, 손 없는 날에는 5만~10만원의 웃돈을 줘야 이사할 수 있다. 북구의 C업체의 경우 주말, 평일, 손 없는 날 상관없이 100~105만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이사 업체별로 이사비용이 달랐으며, 계약 후 이삿짐이 예상보다 많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일선(31·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씨는 “‘손 없는 날’인 다음달 5일 치평동으로 이사하려고 여러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지만 생각보다 비싸 포기했다”면서 “저렴한 평일에 휴가를 내고 이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작정 상대적으로 이사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조언이다.

광주에만 무자격 이사 업체가 300여개 이상 난립해 있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이사를 하다가 물품 등이 손상되더라도 민사소송 외에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자운오 광주화물주선협회 관리부장은 “이사견적을 뽑을 때 꼭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과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허가를 내고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 물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가업체 여부는 광주화물주선협회(062-264-9114), 또는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은 광주시 남구청 화물건설담당은 “현행 운수법에 따라 무허가 이사업체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다만 자치단체의 인력 여건상 일일이 허가증과 보험증을 확인해 단속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가업체라고 해서 피해보상을 쉽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최근 허가업체를 통해 이사를 한 안주경(여·35·광주시 북구)씨는 “신발장고 비데 등이 파손돼 있었지만, 원래부터 그랬다고 버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포장이사 관련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5년 85건, 2016년 95건, 2017년 100건 2018년 3월31일까지 24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5개업체 과징금 4억 부과하고 검찰 고발

신안 새천년대교 교량받침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엔텍 등 3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엔케이시설물 1억 3200만원,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엔텍·태명엔지니어링 각 6600만원이다.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신안 새천년대교 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계약 금액 23억6700만원)에서 저가 수주를 막으려고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정해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량받침이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있으면서 상부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장치다.

담합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엘엔케이 시설물은 기술지원, 부자재 공급, 주자재 공급, 기술지원 분야로 나눠 나머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홍희기자 kimyh@연합뉴스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 작성한 중국어선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약 55km 해상에서 국가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다.

어업 감독 공무원은 선장이 제출한 조업일지의 글씨가 흐릿한 것을 수상하여 여러 확인 끝에 열을 가하면 글씨가 지워지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타실에서는 지

워지는 펜도 발견됐다.

대한민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어획량 조작 방지를 위해 수경이 불가능한 유성 필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획량 조작 등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조업일지 정정, 담보금 부과 등 조치를 할 것”이라며 “최근 서해 상에 삼치, 꽃게 등 어장이 형성돼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200척 이상 조업을 하는 만큼 어획량 축소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표=김병관기자 dss6116@

조폭 매형 구속에 앙심

유형업소서 ‘보복 행패’

구속된 폭력조직원인 매형을 위해 유형업소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한 조폭 출신의 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전직 폭력조직원 김모(33)씨를 유형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새벽 5시10분께부터 15분간 광주시 서구 양동일대 유형업소 13곳의 유리로 된 출입문에 골판지를 휘둘러 7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

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때 서울에서 폭력조직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매형의 고향을 위해 업주들에게 합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매형인 박모(44)씨는 신양OB 파 조직원으로 업소 관리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2억2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경찰은 업주들을 상대로 한 추가 보복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형업소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배우 한예슬 “의료사고 당했다” SNS에 하소연



“배우 한예슬(36)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자신의 SNS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려 논란.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치료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고 하소연.

“한예슬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난 게 맞고 현재 치료 중”이라면서도 정확한 수술 부위나 치료 중인 병원 등에 대해서는 침묵. /연합뉴스

성희롱 피해자 등 부당 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판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원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3000만원 더 늘어난 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적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명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런 조치가 불법 행위라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한 사우나 건물 주차장 3층에서 이모(여·59)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 이씨가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광주 관상소방 제공>

사우나 주차장 3층서 승용차 추락 1명 부상

광주의 사우나 건물 주차장 3층에서 운전자 1명이 탄 승용차가 추락했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47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사우나 건물주차장 3층에서 이모(여·59)씨

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8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씨가 타박상으로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이날 사우나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뜻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영광전원주택(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10평), 마당전체 잔디(고급파라솔 설치)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 3천 ◆
매매가 9천 7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매매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 13억 5천 ◆
(용 3억5천 가능)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 매가 8억3천
- ② 산정공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매가 9억5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평가 45억3천 → 최저가 45억3천	5)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평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6) 동구 학동 (3층원룸) 토 81평, 건 101평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3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평가 6억 → 최저가 6억	7)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평가 3억 → 최저가 2억1천
4) 서구 내방동 4층 상가건물 토 77평, 건 123평 ▶감평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8)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9)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10)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11) 서구 매월동 (정체식당) 토 3302평, 건 3956평 감평가 2백70억 → 최저가 190억

A.P.T	주택	토지,기타
① 서구 용암동 주안리(아파트 12동)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⑥ 북구 용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2천	⑬ 광산구 월산동 토지 1099평, 건물 2400평 감평가 88억 → 최저가 48억
② 서구 내방동 배방주공(아파트2동)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⑦ 광산구 월계동 (중주책) 토지 88평 건물 73평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⑭ 광산구 월동 (공동) 토지 2200평 건물 1250평 감평가 80억 → 최저가 40억
③ 서구 화정동 마주(아파트 2동)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1천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⑮ 서구 용암동 (주택) 1300평 감평가 89억 → 최저가 49억
④ 광산구 쌍촌동 신(주택 42평)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4천	⑨ 북구 용봉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⑯ 광산구 비호동 (주택) 1300평 감평가 89억 → 최저가 49억
⑤ 동구 용암동 관이(아파트 2동)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1천	⑩ 북구 용암동 토지 37평 건물 28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⑰ 서구 용암동 (주택) 1300평 감평가 89억 → 최저가 49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4월초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